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5) 영축산 통도사 영산전

불보살과 자비의 敎海

(교해)

천정은 일체유심조의 마음이 빛내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의 천정(天井) 세계는 일반적으로 장엄(莊嚴)세계다. 구상과 추상, 상징들의 회화와 조형, 문양들로 조화롭게 짜여 있다. 실내의 어둠과 깊이에서 시간에 따라 드러나고 잠기면서 때론 거룩하게, 때론 위대한 아름다움으로 인간의 머리 위에서 밤하늘의 은하처럼 빛난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 궁륭천정에는 성경 속 서사의 프레스코화로 가득하며, 고구려벽화고분 천정에 도교적 신들의 세계와 별자리, 생활풍속화, 생명력의 기운이 흐르는 신령의 문양들로 빼곡하다. 그 세계는 단순히 꾸며놓은 평면적 회화세계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철학이며 종교이고, 숭고한 아우라의 정신세계다. 한 시대, 한 사회의 총체적 삶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일체유심조'의 마음이 그 세계를 창조했다.

현존하는 한국의 불전건물 대부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치명적 전란을 거친 16세기 이후의 건축물이다. 사회적 기반이 거의 무너진 사회경제적 조건은 한 사찰에 하나의 중심불전 정립을 정착시켰다. 대웅전, 극락전 등이 한 건물에 통합되었고, 권축역량도 중심불전건물에 집중되었다. 건물천정 공간에도 정화된 일체의 마음이 작용했다. 사회 저변에 흐르는 민중의 염원과 불교의 화장세계(華藏世界), 그리고 거룩한 진리, 엄숙한 신성, 부드러운 자비를 집합적 군집의 형태로 표출했다.

진리가 갈무리 된 범자종자불

칸칸은 독립된 하나의 독자성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부분이 있는 프랙탈기하학의 생명생성 원리가 전개되었다. 천정은 평면이면서 중중(重重)의 공간 세계다. 깊고도 중중적인 상의(相依)의 세계로 펼쳐졌다. 삼천대천의 화엄세계다. 칸칸이 불교세계관의 종자를 심었다. 범자종자 불씨를 뿌렸고, 여래장 불성(佛性)을 심었고, 부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갈무리해서 내장하였다. 우물반자 겨자 틀을 불성의 논밭으로 일구었다. 그 밭에서 성스러운 불성들이 불립문자로 돌아왔다.

그를 키운 건 자비의 불이었고, 적멸의 침묵이었다. 무위의 불이 천정 칸칸에 함장되어 있었다. 봄은 머무는 바다, 머물지 않는 바다였다. 오고 감도, 형상도,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못 생명을 소생시키고 기른다. 봄이 부치고, 부처가 봄이다. 연두빛 새싹이 돌아오는 봄의 대지는 정토(淨土)다. 봄의 대지에 대지를 뚫고 돌아오는 신령의 새싹들로 금이 가고, 쇠방선이 지나는 파열음으로 진동한다. 신선한 생명의 꽃내가 천지에 가득하고, 생명의 나무에 우화(雨花)의



육업연화문에 불보살의 상주법계는 물론이고 사시에불, 장엄염불, 옹호계 등 유례없는 미증유의 진리계승과 염불을 장엄했다.

한자음역 육자진언, 중생 근기 맞춰

불보살의 불생법멸 상주법계 드러내

꽃이 핀다. 여섯 가지 상서로운 법화육서(法華六瑞)가 일어난다.

천정장엄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

봄이 세간의 대지에 오듯이 부처께서 번뇌 등 다섯 가지 흐린 오탁악세(五濁惡世)의 예토에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출현하신 뜻도 바로 그러할 때문이다.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열고(開), 지견을 보이고(示), 깨닫게 하여(悟), 해탈에 들게 함(入)으로 일체중생의 정토로 제도하기 위해 출현하신다.

그런데 중생 저마다 가지가지 욕망과 집착으로 저마다 다른 성품과 근기를 가지가지지 인연과 비유, 방편으로 쪼개고 나누어서 병따라 처방하신다. 천정의 화장세계도 고차적 관념인 불성의 조형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꽃이 꽃이 아니고, 문자가 문자가 아니다. 불가설불가설의 불교 세계관을 고도로 압축한 상징이자 메타포다. 그래서 천정장엄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난해하고, 제 눈의 안경이 되기 십상이다. 불화처럼 천정장엄에 대한 화기(畫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정장엄에 대한 교의적 바탕이 되는 소의경전(所依經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자니 천정의 꽃만 보면 그나마 교의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화경> 서품에 나오는 '우화의 상서'라고 단정짓곤 한다. 그것은 국화를 아는 사람이 모든 꽃을 국화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통도사 영산전 천정장엄은 천정장엄세계의 풍부함과 광대무변(廣大無邊)함, 철학적 깊이의 실상을



중생의 다양한 표정처럼 격자의 교점마다 시들지 않는 자비의 마중물로 가지가지 형상의 꽃을 엮었다.



삼라만상의 순환, 회전, 대칭의 코스모스적 운행을 표현했다.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의 화엄법계를 이룬다.

날날이 자내증으로 드러내고 있어 불교미술사학과 천정장엄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자전과 공전처럼 회전 속 회전

영산전은 통도사 적멸보궁, 부석사 무량수전, 마곡사 대광보전처럼 두 축을 갖추고 있다. 출입동선은 남북방향인데, 예배공간

은 90도 꺾인 동서방향이다. 천정양식은 상하2단 층급우물천정이다. 사방 가장자리 천정의 우물칸 수는 124칸이고, 중앙의 상층에 경영된 우물칸 수는 156칸으로, 총 280칸 우물반자 칸간에 모란, 넝쿨형 신령의 꽃, 그리고 6엽연화문을 베풀어 풍부하고 독특한 벽화와 함께 미증유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 중앙칸 천정은 밀교적 금강계만

순환, 회전, 대칭의 코스모스적 운행

칠연절구 문학적 운을 갖춘 계승 표현

다리의 오대오불(五大五佛)의 세계이다. 봄은 바람의 천체에 노란 생명의 줄기가 소용돌이처럼 감겨 나가고, 주간에서 다시 새로운 인연의 힘이 뻗어나가 역방향으로 돌아 나간다. 만유의 자전과 공전처럼 공전 속에 자전을, 회전 속에 회전을 반복한다. 가운데 급니 씨방부분은 자등명으로 미어터져 여기저기서 봄의 생명력이 폭발한다. 삼라만상의 순환, 회전, 대칭의 코스모스적 운행이 아름다운 오방색 색채로 축소조영되어 있다. 그 조영은 한없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되며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의 화엄법계를 이룬다. 그것은 천상 설레임 같은 미묘본심이 일렁이는 봄의 대지를 닮았다. 봄은 오고가지만 줄어들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비로자나 법신의 세계다.

유기물 원자의 공유결합 같은 법계

사진가인 나는 영산전을 슬하에 찾아가서 천정에 새겨진 조형문자와 문양들을 낱알이 영상에 담았다. 나의 주목을 끈 것은 영산전 가장자리 천정, 그 중 동서 양향칸 천정 84칸의 우물반자에 배운 6엽연화문의 문자종자들이었다. 문자언어가 담고 있는 세계를 인내력을 갖고 빠짐없이 분석해 보았다. 그 세계는 차마 놀라웠다. '옴마니 반메훤'의 범자진언은 물론이고, 한자로 음역된 육자진언도 있어 중생의 근기에 맞춰 조영의 뜻을 전달하려는 언어학적 관용과 방편에 경건함을 자아냈다. 6엽연화문은 평면회화가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4층의 중중구조를 지닌 입체다. 맨 아래에 아직 분화되지 못한 미혹의 검은 꽃잎이 있고, 그 위에 여러 불보살과 경전의 진리가 펼쳐 법계를 이룬다. 여섯 꽃잎 위에 여섯 개의 보주입체가 유기화합된 원자들의 공유결합처럼 원자쌍으로 결속해서 새로운 맹아를 구축하고 있다. 종자범자나, 칠연절구의 마지막 글자를 엮어 한 칸을 일 단락 지었다. 범멸의 가지가지 형상은 중생의 가지가지 표정처럼 격자의 교점에 화룡점정으로 엮었다. 시들지 않는 자비의 마중물이 적멸의 세계에서 별처럼 빛난다.

천화진언, 장엄예불 미증유의 표현

여섯 종자, 혹은 일곱 종자로 드러내고 있는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광대하다. 이러한 작업은 어느 불전장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부사의(不思議)한 미증유의 신동력이다. 무엇보다 먼저 빈번하게 출현하는 세계는 불보살의 세계다. 석가모니, 아미타여래,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지체, 공덕을 총섭해서 부처의 만다라, 곧 불국토를 펼쳐 두었다. 청정도량으로의 봉청(奉請)의 뜻도 담겨 있다. '불신보편시방중(佛身普徧十方中)'과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體同)'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상주법계를 자내증으로 내보인다. 석가모니와 아미타여래, 관음보살은 대승적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보다 풍부하게 장엄했다. 특히 불전건물의 성격에 상응하여 <법화경> 서품과 영산회상의 상서도 빠트리지 않았다.

불생법멸의 상주법계를 정법안장한 후, 사구계나 칠연절구의 문학적 운을 갖춘 여러 계승과 진언으로 진리법을 드러냈다. 법(法)의 공덕과 법의 장엄(莊嚴)이 문학적 아름다움으로 더해져 적멸의 고요함은 보다 유익적으로 내밀화 하였다. 법화경 사구계, 예불문, 사시에불의 <천화진언>, <장엄예불>, <공양계>,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아미타불 <관불계>, 예수재 <옹호계>, 영산재 등에서 행하는 시련 <옹호계> 등 장엄의 영역은 무시무중 광대무변으로 펼쳐졌다. 실상은 천정의 개념을 완전 비우고 여인 진리의 바다다. 불보살의 상주법계이며, 자비와 경전의 바다, 교해(敎海)다.

<금강경오가해>에 나오는 중경스님의 계승한 구절이 천정에서 빛난다. 천강유수천강월(千江流水千江月) 만리무운만리천(萬里無雲萬里天) 천강에 물이 있으니 천강이 맑이요, 만 리에 구름 없으니 만 리의 하늘이 맑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작가

마하연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MAI ★ 미얀마 항공 취항 특가 ★

- ▶ 만달레이 / 바간/헤호 / 양곤 11월 18일 / 11월 25일 출발 179만원
특급호텔 사용 - 모든경비 포함
- ▶ 만달레이 / 바간/양곤 5일 99만원
-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국적기 직항

-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살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렉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블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미얀마 워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 보현도량(아미산) 5일 요금문의
-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펙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콘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헤거 두손오름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 ① 모든경비 포함
-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 ④ 2억원 여행자보험 가입